```
<top of typeblock>
                         (\baselineskip (+\topskip))
                   \chapterheadstart = \vspace*{\beforechapskip} = 50pt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\chapternamenum = \space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\postchapternum
= \chapnamefont\post@chapter = \chaptername
                      \printchapternum = \chapnumfont\thechapter
\prechapternum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\afterchapternum
=\chapnamefont\pre@chapter = 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\par\vskip\midchapskip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20pt
\printchaptertitle[1]
                     \chaptitlefont = \bfseries\HUGE
                \afterchaptertitle = \vskip\afterchapskip = 40pt
                지금 나는 밤중에 한 강을 아홉 번 건넜다. 강은 새외로부터 나와서
        \chapterprecis 장성을 뚫고 유하와 조하·황화·진천 등의 모든 물과 합쳐 밀운성 밑
                     을 거쳐 백하가 되었다.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, 이것은 하
                     류였다.
                하수는 두 산 틈에서 나와 돌과 부딪쳐 싸우며,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머리와 우는
               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면서, 우는 듯, 소리치
                는 듯, 바쁘게 호령하는 듯,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, 전차 만승과 전기 만
```

\clearforchapter = \cleartorecto